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7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 코로나 속 두터워진 상호 신뢰 ... 여전히 절반은 '각자도생'

2020. 04. 08.

담당자 김혜진 부장

전화 | 02-3014-0043
e-mail | kimhj@hrc.co.kr

신하은 연구원

전화 | 02-3014-1027
e-mail | heshin@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오승호 부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구정태 대리

전화 | 02-3014-1040
e-mail | jtkoo@hrc.co.kr



기획조사 :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

— 코로나 속 두터워진 상호 신뢰 ... 여전히 절반은 ‘각자도생’

-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의 2019세계번영지수는 한국사회를 저신뢰 사회로 진단했다.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28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로 상위의 종합지수에 랭크됐지만, 구성원 간 상호신뢰나 협조,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 부문은 145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국가’로 명명하기도 했다.
- 사회의 신뢰 수준은 재난 상황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뢰’에 주목한 이유다. 우리 사회는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성숙한 역량과 상호 신뢰를 보여줬을까. 조사는 대구경북지역 확산세가 주춤하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61%는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 위기가 한국을 신뢰국가로 도약하게 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표되는 자기 의무의 실천이고, 두 번째는 공적 방역시스템에 대한 전폭적 신뢰이다.
- 민간기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위기 상황에서 동의된 사회적 규범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대신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비용의 책임도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취약한 사회적 관계도 드러났다.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집안일(54%), 경제적 부탁(53%) 등을 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취약해, 70%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집안일과 경제적 도움에 대한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학연기로 인한 보육공백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절반이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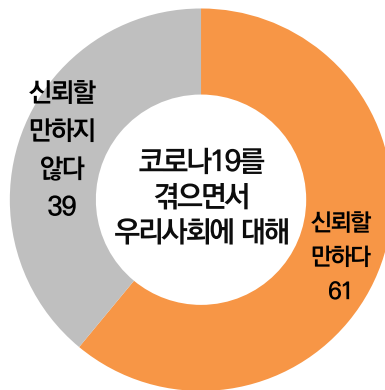
“우리 사회 신뢰했다” 61%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사재기 광풍 속에서도 한국은 차분함을 유지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시간의 기다림에도 큰 불평 없이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엄습하는 공포 속에서 확진자나 중국, 신천지 등을 향한 혐오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고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등 서로를 품으며 점차 안정을 찾았다.

(단위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다 61%



질문: 귀하께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셨습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on.co.kr)

1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위기 속 자기 의무 실천

신종 코로나 위기가 한국을 신뢰국가로 도약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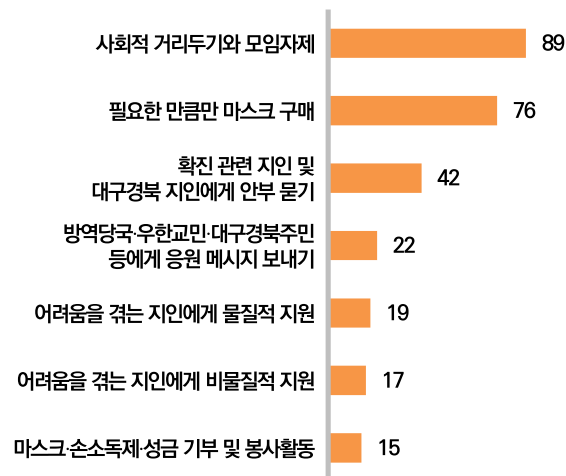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에 따른 자기 의무 실천이 강했다. 우리 국민의 89%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자제'를 몸소 실천했다. 76%는 5부제까지 등장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만큼만 마스크를 구매'했다. 강력한 정부의 제재와 권고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뢰가 없었다면 권고는 무색해졌을 것이다.

두 번째 단서는 공적 방역시스템에 대한 전폭적 신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사회 주체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국민 대부분이 의료계와 정부 등 공적 영역의 방역당국이 '노력했다'는 데에 동의를 보냈다. 이는 이전의 여러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정지지도가 폭락하고 연일 정부 책임론이 들끓었던 예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자기 의무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듯 '국민'이 노력했다는 데에도 93%가 동의했다.

다만 언론과 종교계,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선 평가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특히 정치권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는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저신뢰국가를 대표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92%)은 높았지만, 부산·울산·경남(81%)은 다소 낮았다. 대구·경북 지역은 84%였다.

자기 의무의 실천 -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자제 실천 89%, 필요한 만큼만 마스크 구입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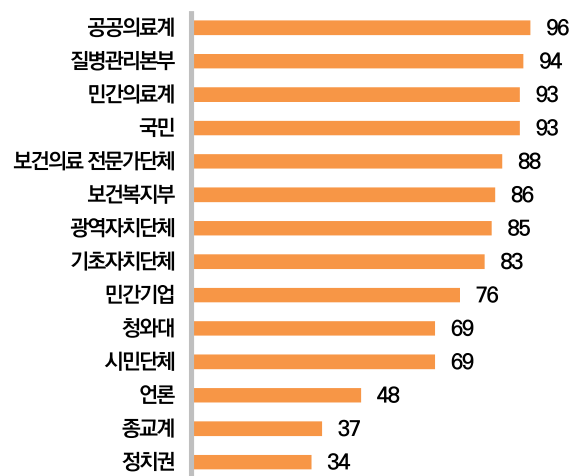
질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행동을 실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고: '경험 있다' 응답값임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공적 방역시스템에 대한 신뢰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질문: 다음 각 사회주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 노력함'과 '다소 노력함'을 합한 결과임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사회 신뢰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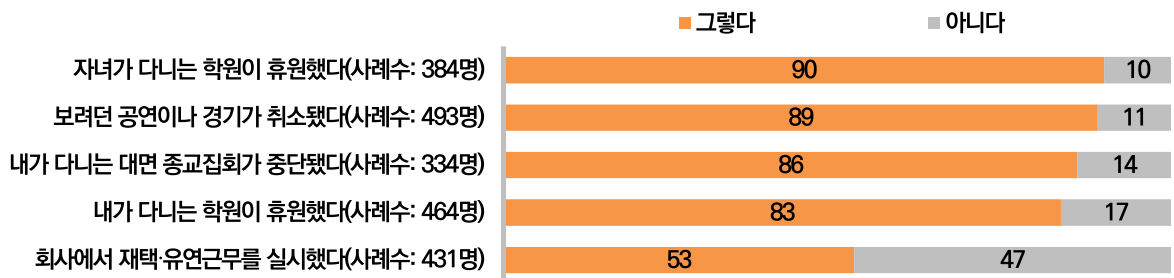
‘민간’보다는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영업 및 활동 자제를 권고하자 민간 기관은 이에 적극 동참했다. 학원의 휴원, 공연이나 경기의 취소, 대면 종교집회 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80~90%에 달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의 직장에서 재택·유연 근무를 실시한 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런 민간의 광범위한 동참에도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제재 권고가 있었던 집회·시위의 제한(89%), 종교 집회의 제한(86%), 공연·경기의 제한(73%), 학원의 휴원(69%) 등은 모두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보다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동의된 사회적 규범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단위 : %)

민간기관도 코로나19 극복 동참에 적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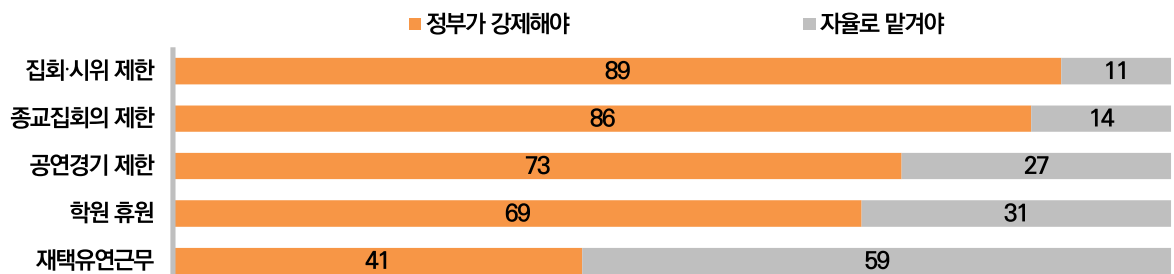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의 실시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비고: 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자는 제외한 값이며, 각 항목별 유효응답 수는 그래프에 별도 표기

조사기간: 2020.03.13~03.16

집회·시위와 종교집회,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 높아



질문: 선생님께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사회 신뢰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확진자 의료비,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생계비, 폐쇄조치 사업장의 영업손실 등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또 응답자의 70%는 민간 기업들, 특히 타격이 컸던 문화체육계와 관광업계 등 특정 부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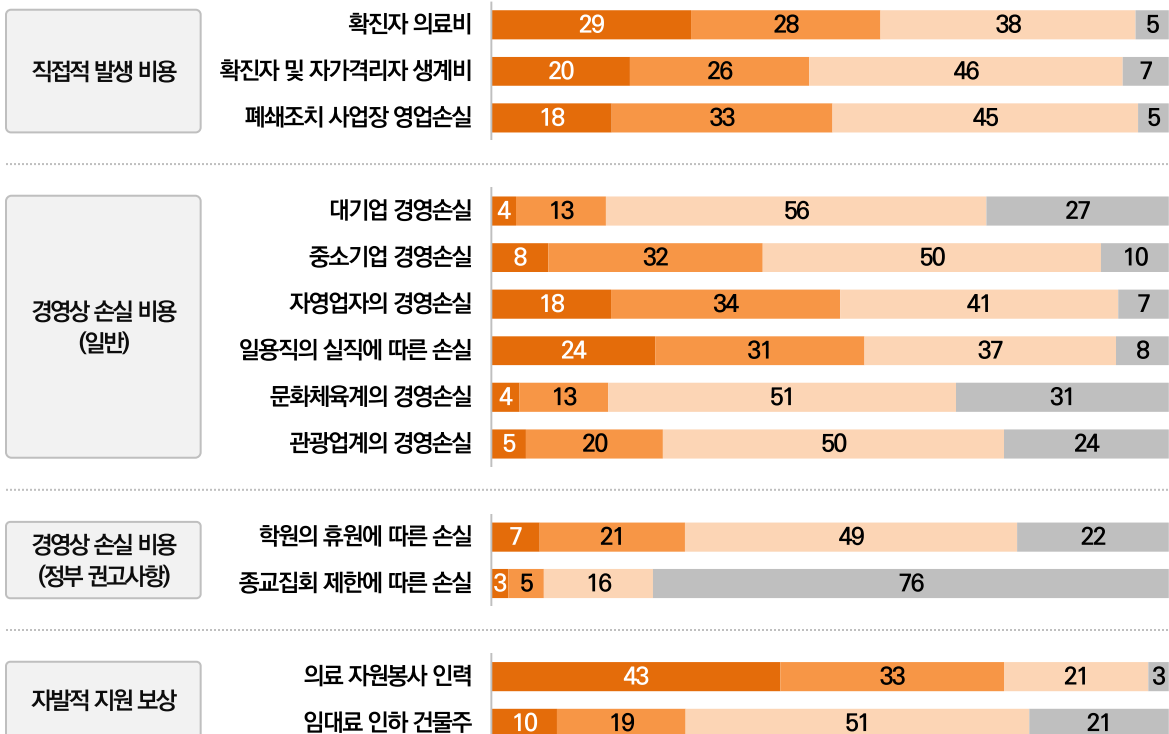
일용직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 동의도가 더욱 높긴 했지만, 대기업의 경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응답도 73%에 달한 점도 주목된다. 학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견해였다.

다만 사회의 주된 경제활동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종교기관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집단 감염 및 물의를 일으킨 일부 종교계에 대한 질타가 섞인 여론이다.

(단위 : %)

코로나19로 발생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정부가 어느 정도 감당할 필요 있다는 의견 다수 단, 종교기관 손실 보전에는 반대

■ 전적으로 지원 ■ 상당부분 지원 ■ 일정부분 지원 ■ 지원 반대



질문: 다음 사회 각 부문의 손실과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취약한 사회적 관계

“도움 받을 사람도 기관도 없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이 커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다소 우울한 결과에서 단초가 보인다.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집안일(54%), 경제적 부탁(53%) 등을 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열악했다. 70%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집안일과 경제적 도움에 대한 손을 내밀어 볼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모든 걸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크다는 얘기다.

(단위 : %)

국민 절반,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안일, 경제적 부탁 할 사람 없다
10명 중 7명, 도움을 줄 공적 기관 없다



질문: (사람)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습니까?
(기관)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기관(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있다' 응답값임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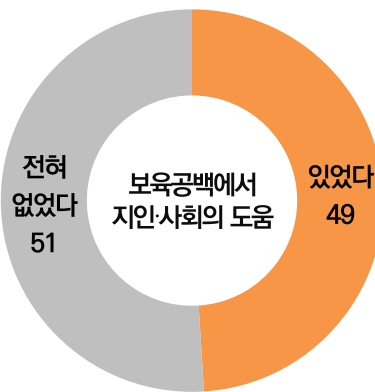
3 취약한 사회적 관계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68%로, 직접적 도움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전국 사회조사의 동일 문항(84%) 대비 급격히 떨어진 수치다. 개학 연기로 보육공백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절반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나마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건 가족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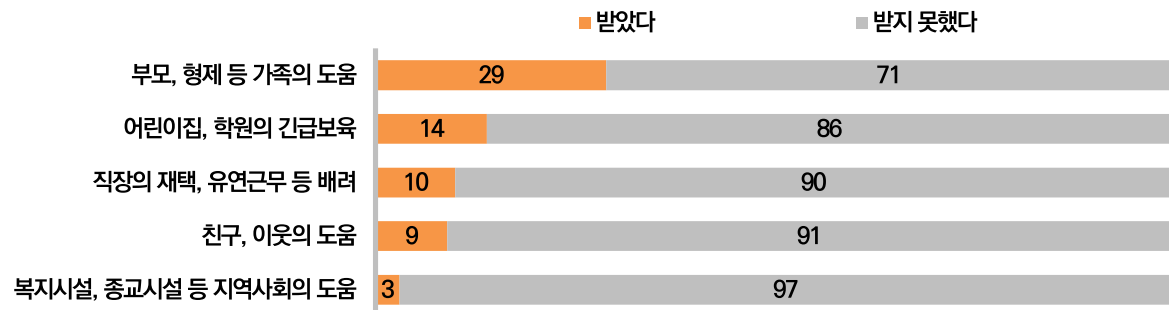
이번 조사로 확인된 책임 있는 시민들의 행동과 방역 당국의 대처에 대한 평가는 ‘저신뢰국가’라는 오명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야 할 길도 분명히 드러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기 의무적 성격의 국민적 실천은 훌륭했다. 그러나 지인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 기부 및 봉사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는 20%도 안 됐다. ‘각자도생’ 현실에 놓인 국민 절반을 구제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절실하고, 구성원 간 협력도 더 필요하다.

(단위 : %)

보육공백 상황에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51%



도움을 받은 경험 있더라도, 가족 범위 내 도움이 다수



질문: 휴원, 휴교 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보육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 받았던 경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비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응답자 180명의 응답값임

조사기간: 2020.03.13~03.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년 3월 기준 약 46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9,458명, 조사참여 1,302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0.6%, 참여대비 76.8%)
조사일시	• 2020년 3월 13일 ~ 1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